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0卷(3), 2007. 12, pp.159~180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 교육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조건 -

장 지 순*

본 연구는 글로벌시대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교육시스템의 해외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현황, 주요국가의 사례 및 시사점, 한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지식의 전수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국제개발협력은 첫째, 한국의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둘째, 연구기관, 대학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셋째,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며, 넷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섯째, 국제적인 연구동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특별기금 등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교육서비스, 국제개발협력, 교육시스템, 지식의 전수

투고일: 2007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13일, 심사완료일: 12월 12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simon@krivet.re.kr)

I. 문제 제기

교육서비스 산업은 지식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상품으로서 교육은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교육시장은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교류,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포함한다. 아시아-태평양권의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고 수출산업의 비중 있는 분야로 여기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량에서 교육부문의 생산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1990년 초부터 정부차원에서 '교육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독립부서를 두었으며,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유관기관의 협조와 체계 속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¹⁾ 중국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협력을 195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원조 및 개발을 위한 토대(Base for Education Aid and Development; BEAD)'를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浙江사범대학(Zhejiang Normal University)에서 실시하고 있다.²⁾

이렇듯 교육시장의 개방과 함께 서비스 분야로서 교육의 국제화 부분이 부각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국제화부분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며, 더구나 우리의 현실은 가구당 교육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수지 균형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³⁾ 2007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2,577명에 비해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은 대학교 과정 이상이 192,258명으로 1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의 지식산업으로서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 독일의 경우 개발원조의 기획 총괄부처인 경제협력개발부(BMZ)를 중심으로 하여 실행기관인 KfW, GTZ, InWent, DED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Ⅲ. 개발협력의 국제동향' 참조.

2) 자세한 것은 MEI(2007) 참조.

3)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배 이상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전후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경제·사회발전의 사례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성공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커다란 원동력은 바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이었다. 그리고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공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한국을 경제발전을 이룩한 성공모델로 삼아 부강한 국가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우수한 인력양성시스템과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지식사회의 발전추이를 볼 때, 지식산업으로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이 추진하기에 비교우위가 높은 블루오션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심의회에서 '교육·훈련사업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인 바, 이를 체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식산업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교육시스템의 해외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국제동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 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였고, 대외원조사업 중에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사례 두 가지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넷째,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지식의 전수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관련 문헌 및 자료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제5차 인적자원개발심의회(2007. 6. 27)에서 논의된 교육/훈련 수출체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로 추진되어온 교육/훈련 분야의 대외원조에 대한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여 연계성/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5)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국가 간의 경제개발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상업차관(Commercial Loan),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적개발원조(ODA)로 그 개념을 한정한다.

II. 서비스 산업으로서 교육

1. 교육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서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⁶⁾ 예를 들어 사교육을 보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가구당 소비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11.8%나 되며, 2020년에는 13.9%로 증가해 이는 가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서비스 산업이자 비즈니스 영역으로 새로운 시장이다.⁷⁾ 1994년에 설립된 미국의 Career Education Corporation(CEC)과 피닉스 대학이 좋은 사례이다. CEC는 전문대학, 학교, 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저히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⁸⁾ 또한, 피닉스 대학의 경우 1976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사이버 공간 상에서 실시하고 있다.⁹⁾

한편,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지식상품화를 통한 교육의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이다.¹⁰⁾ 지식사회에서 대학은 CEC나 피닉스 대학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6) 교육산업은 공교육과 사교육 및 교육관련 사업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김영철, 2006) 참조).

7) 특히 국내 최대의 온라인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 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8) CEC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학교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the Le Cordon Bleu Schools North America(요리), the Harrington College of Design(디자인), the Brooks Institute of Photography(사진), the Katharine Gibbs Schools(1911년에 설립된 유명한 직업학교), American InterContinental University, Colorado Technical University and Sanford-Brown Institutes and Colleges 등을 묶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9) 특히 실리콘 벨리의 기술변화에 필요한 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45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 대학의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10)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선진국은 대학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영국의 Development Partnership in Higher Education, 미국의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등을 들 수 있다.

가치의 창출이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돈희 외(1999: 139)는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국가 핵심 전략의 하나로서 대학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여야 하고, 특히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대학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2. 교육서비스 산업의 내용

교육서비스 산업을 수출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학교의 설립, 교육프로그램 개발, 각종 센터의 설립, 인적자원의 교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조원권 외, 2004: 10). 첫째, 학교의 설립은 실습시설 및 장비의 제공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물론,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각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이 있으며, ICT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사이버대학 내의 e-learning, e-teaching 등과 같은 원격교육)이 있으며, 이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품들이다.¹¹⁾ 셋째, IT 교육센터, 어학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각종 센터의 설립도 있다. 각종 센터의 설립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문화적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의 대외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인적자원의 교류는 학생 및 교수의 교류를 의미한다. 이 분야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대학별 양해각서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몇몇 대학은 대외부총장을 두어 직접 활용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선진국의 우수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Post Doctor 프로그램이나 교수휴식년 제도 등을 활용해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다양한 장학금제도나 BK사업 등을 통해서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도 한다.¹²⁾ 그렇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초청 개도국 대상 장학금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각 대학의 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11) 한국 사설학원의 한국식 대학입학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도 도입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른바 명문 아이비리그에 입학하기 위한 과외프로그램으로 미국 동부 및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2) 미국의 외국 유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로 매년 12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김영철, 2006) 참조.

Ⅲ. 개발협력의 국제동향

1. 국제적 동향

국제개발협력은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미국·소련·유럽)이 중심이 되어 패전국(독일·일본)의 재건을 목표로 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발원조는 2000년 들어서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유엔총회에서 논의한 이후 사회 및 경제적 개발을 통한 인류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개발원조 형태를 벗어나 참여적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¹³⁾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언타이드 원조¹⁴⁾를 중심으로 하며,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8월 OECD/DAC 원조 공여국 고위회의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좋은 사례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독일과 호주, 뉴질랜드 세 나라에 국한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특히 교육의 수출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며, 독일의 경우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13) 유엔(UN)의 브란트랜드 보고서(Brandtland Report)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14) 원조의 형태를 공여국의 물자 및 서비스로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타이드(Tied) 원조'(전자)와 '언타이드(Untied) 원조'(후자)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제개발협력의 사례

가. 독일

독일은 1961년에 경제협력개발부(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¹⁵⁾라는 독자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하여 국제개발협력, 즉,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추진하고 있다. BMZ은 개발원조의 전반적인 틀을 정립하고,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와 개발원조에 대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05년 예산은 3억8천 6백만 유로로 GNI 대비 0.36%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2010년에는 0.51%, 2015년에는 0.7%까지 증액할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한 추진 기구로는 GTZ(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KfW Group(KfW Bank), InWEnt(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Germany), DED(German Development Service), DEG(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등을 두고 있다.

KfW Group(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보통 독일금융금고라고 하는데, 1948년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한 마셜 플랜에 의거해서 설립되었다. 4개 그룹으로 구성되는 바, 이중 개발 원조를 담당하는 곳은 KfW Entwicklungsbank(Development Bank)으로 유상차관과 무상원조에 대한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에는 100개 국가에 걸쳐 1,4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KfW의 산하기관인 DEG(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mbh)는 독일 투자개발공사라고 하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금융 및 생산 분야의 협력을 담당하는 곳이다. 1962년에 설립되어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업발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05년에 6억7천만 유로를 투자하였는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즉, 농업분야부터 제조업까지, 서비스 분야에서 인프라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는 기술협력공사라고 하는데, 1975년에 설립되었다.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준비, 실행, 평가 단계별 기술을 자문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하며, 교육훈련의 설계 및 실시 등을 주로 한다. 126개 국가에 걸쳐 2,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10,600명의

15) 독일어로 BMZ(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이라고 하며, 흔히 BMZ이라고 부른다.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8,200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66개 국가에 걸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최대의 원조기구이다. InWEnt는 국제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조직으로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2002년에 Carl Duisburg Society와 독일국제개발재단(Germ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합병하여 탄생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약 55,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산업, 정치, 행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활동한다. 'Global Campus 21'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료생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실무위주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유용하다. 매년 1억 4천만 유로 정도가 집행되는데 70% 정도가 BMZ와 연계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교육과학부, 경제기술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프로그램도 수행한다. 또한, GTZ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특히 직업기술교육 분야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DED는 1963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일종의 전문인력 풀을 말한다. 40개국에 걸쳐 1,0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경제 및 고용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연수제도, 중소기업, 민간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을 주로 담당하며, 이 밖에 민주주의 증진, 시민사회 구축, 자원보호, 수자원관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 965명의 기술전문가들이 430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70% 정도의 사업이 GTZ, KfW, InWEnt 등과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독일은 대외원조 사업을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라오스의 경우, KfW-GTZ-InWEnt-DED 등이 연계하여 광범위한 기술직업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라오스 북부 지역에 국한하여 통합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거나 각종 제도 및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일은 1999년에 라오스의 직업교육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자문을 토대로 하여 향후 라오스 직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의 일환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먼저 GTZ에서 HRD-ME라는 프로젝트를 InWEnt와 DED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HRD-ME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 Market Economy로 수요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DED의 전문가들이 담당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InWEnt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새로이 학교 설립이 필요한 곳에는 KfW의 지원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InWEnt와 DED를 활용하도록 했다.

나. 호주

호주의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처(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2007~2008년도의 예산은 모두 3억1천5백만 달러로 GNI의 0.3%에 이른다. 인도네시아(4천5백만 달러), 파푸아뉴기니(3천5백만 달러), 솔로몬 군도(2천2백만 달러), 필리핀(1천만 달러) 등에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36%), 중등 및 고등교육(15%), 기초교육(13%), 기술직업 훈련(8%), 기타 교육(28%)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장학생 선발을 통한 우수인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국제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 IETG(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rants Program)가 대표적인데, 이는 APEC, OECD, SEAMEO, UNESCO, AEUC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연구, 훈련 및 연구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 훈련서비스 분야에서 무역거리를 하는 호주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서비스 분야의 수출 지원을 한다. 또한, 교육제도의 지배구조 개선과 서비스의 강화 등 교육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개선, 이슬람교육에 대한 지원, 영어교육 지원 등 지역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신호주-태평양기술대학(New Australia-Pacific Technical College)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호주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권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학생 유치 등을 통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창구는 NZAID로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의 산하기관이다. 주요 전략 방향은 태평양지역 국가, 아시아 지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빈곤 타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NZAID의 예산은 GNI의 0.27%에 해당하는 4억 달러이고, 유엔이 목표로 하는 0.7%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티모르 지역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 5백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베트남 빈딩 지역의 농촌개발과 교육지원을 위해 7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뉴질랜드는 이와는 별도로 교육수출(Export Education)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산업은 뉴질랜드 수출상위 5대 품목 중의 하나이며, 별도의 신탁자금(Trust)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88년에 뉴질랜드 무역개발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교육협동실행기관으로서 뉴질랜드 교육국제공사(New Zealand Education International Limited; NZEIL)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9년에 교육뉴질랜드(Education New Zealand; ENZ)로 변경하여 교육수출을 관장하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 목적과 전략은 첫째, 국제교육에 관한 리더십 제공, 둘째, 관련기관자의 계약 개선, 산업분야의 능력 개발, 수월성과 질 개선, 사업수행에 관한 개선과 공고화 등이다. 또한 2002년에는 교육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할당제도(levy system)를 통해 교육수출을 위한 산업발전기금(Export Education Industry Development Fund)을 만들어 전문적인 개발 활동, 질적 보증 및 연구 등 교육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 교육혁신프로그램(Export Education Innovation Programme; EEIP)를 만들어 국제화 교육에 대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장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구조, 새로운 기여모델 확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을 확보하는 정책을 교육수출의 의미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3. 주요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이상에서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세 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고찰하였다. 가장 체계적인 독일,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이들 세 국가의 사례에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에 대한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자본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KfW에서는 자금을, DED에서는 인력을 GTZ과 InWent에서는 프로그램을 각각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한 국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 그리고 직접적인 실행(action plan)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원조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였고, 독립적인 책임기관을 두고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경제개발협력부(BMZ), 호주의 국제개발처(AusAID) 등이 그것인데, ODA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목표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외무부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대비되었으며, 또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기금을 마련하여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경제협력기금과 유사하지만, 분야를 교육산업에 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지식 산업으로서 교육서비스 산업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IV.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최근 동향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1963년 미국의 USAID의 자금 지원에 의한 연수초청훈련을 실시한 것을 효시로 보고 있다. 1977년에는 외무부에서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국산기자재를 공여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7년에는 3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마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차관 제공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해외봉사단을 선발하였으며,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¹⁶⁾

한국 정부의 ODA는 1996년도에 159.15만 달러였던 것이 2006년도에는 455.3만 달러로 10년 동안 4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OECD 가입 국가의 ODA/GNI 비중의 평균치인 0.2%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3년간은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이 여파로 국내 총생산 대비 ODA 예산은 0.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역할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2006년도에는 양자 간 원조가 82.6%, 다자 간 원조가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GNI 대비 0.051%에 불과하였다.

16) EDCF를 집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이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한국의 ODA 공여 규모

(단위: 백만 불)

구분 \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공적개발원조	159.15	185.61	182.71	317.49	212.07	264.65	278.78	365.91	423.32	752.32	455.25
① 양자간 협력	123.31	111.34	124.70	131.35	131.19	171.54	206.76	245.17	330.76	463.30	376.06
○ 무상원조	53.41	54.77	37.21	38.95	47.78	52.97	66.70	145.46	212.09	318.00	258.95
○ EDCF차관	69.90	56.57	87.49	92.40	83.41	118.57	140.06	99.71	118.68	145.30	117.11
② 다자간 협력	35.84	74.27	58.01	186.14	80.88	93.11	72.02	120.74	92.56	289.01	79.19
GNI (억 불)	4,804	4,374	3,168	4,021	4,552	4,213	4,770	5,761	6,810	-	-
ODA/GNI (%)	0.033	0.042	0.058	0.079	0.047	0.063	0.058	0.064	0.062	0.096	0.051

자료: 재정경제부(2007). 「2007년 ODA 현황」.

지역별로 아시아(60.5%)에 집중되었으며, 아프리카(12.7%), 유럽(8.3%), 중남미(6.9%) 순으로 지원하였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로 교육·보건·위생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59.7%, 교통·통신·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25.3%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경제의 위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ODA/GNI 비율을 2009년까지 0.1%, 2015년까지는 0.25%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2> 한국의 향후 ODA 재정 운용계획안

구분 \ 연도	'07	'08	'09	'10	'11
ODA총지출 (억 원)	7,254	8,968	10,017	11,381	12,801
ODA/GNI (%)	0.081	0.096	0.103	0.111	0.119

자료: 재정경제부(2007). 「2007년 ODA 현황」.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한편, 대부분 선진 원조국들은 자체의 대외원조에 관한 전략 틀인 원조헌장(Aid Charter)을 가지고 있다.¹⁷⁾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원조헌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러한 원조헌장을 제정하고 이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

17) 미국은 1961년에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를 제정하였고, 캐나다는 1995년에 '캐나다 외교정책성명(Canada's Foreign Policy Statement)'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일본은 JICA의 임무(mission)과 선언(oath of service)을 통해 각 부처의 원조 정책 수립 및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07년 7월에 제 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중기전략(2008~2010)'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수립하였는데, 21세기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 과제인 UN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을 유지하면서,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고, 비교우위 분야인 교육, 보건, IT, 농촌개발, 경제개발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차관사업 지원 현황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현재 12건이 지원되었다(〈표 3〉 참조). 주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이 많았으며, 교육정보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학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다. 반면, 국제협력단의 무상지원은 해마다 10여 개 이상 크고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관 사업만큼은 아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향후 ODA 예산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 교육사업에 대한 EDCF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국가	사업명	승인일	차관한도 (총 사업비)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91. 9.16	18,181 (20,459)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	'92. 4.29	10,994 (11,834)
인도네시아	실업교육 개선	'94. 2. 8	8,110 (8,921)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 개선	'99.12.24	39,251 (40,372)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	'02. 1.28	36,230 (45,369)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개발	'03.12.23	25,310 (106,942)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설립	'04.12.31	23,133 (28,942)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	'04.12.23	17,124 (21,405)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06. 3.23	27,909 (34,889)
파테말라	교육정보화 사업	'06. 9.19	21,955 (27,444)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	'06.11. 3	11,987 (15,317)
스리랑카	국립직업훈련원 개선	'06.11. 3	8,353 (10,491)
계	12건	-	248,537 (372,385)

3. 교육서비스 분야의 사례

교육부문의 국제개발협력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사업이 있었다. 이 중에서 캄보

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원조사업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 두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추진된 사업이며, 기존의 사업과 다른 하드웨어(건축 및 장비 제공)와 소프트웨어(자문활동 및 학교 운영 등)를 동시에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설립 사업은 기존의 교육원조 사업의 단순한 기자재 공여 사업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직업교육 훈련시스템을 캄보디아 현지 사정에 맞게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¹⁸⁾ 즉, 캄보디아 현실에 가장 적합한 직업 훈련원을 구축하여 학교운영, 교육과정, 교재개발, 교사연수 등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HRD)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교육 원조사업이 단순한 기자재, 장비 등 하드웨어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운영에서도 성공적인 교육 원조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이 기존의 교육원조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사업이 단순한 기자재 제공이었음에 반하여 본 사업은 향후 학교운영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어 준비하였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직업훈련원 사업은 기자재 제공, 연수 훈련 등을 통하여 용역제공을 하는 데 그쳤지만, 본 사업은 향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성공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 구성, 교재개발, 자격제도 정비, 산학협력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자재 및 실습장비의 공급은 물론 강의실과 실습실 그리고 기숙사를 구비한 건설 등 하드웨어를 고려하였다. 즉,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가미하였고, 학교의 운영에 대한 것도 고려한 것이다. 본 사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사업의 범위 및 내용

사업 범위	주요 내용
토목 및 건물 시공	- 도로건설, 전기 및 전화 - 강의 및 실습동, 본관, 강당 및 식당, 기숙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학교 운영 자문 연수	- 학교운영전략: 법제도, 자격, 산학연계 등 - 전문가 파견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 교원 및 교직원 연수
실습기자재 공급 및 설치	- 실습장비, 운영인프라: LAN, PABX 등
건설컨트	- 실시설계 및 건축 감리 - 학교운영, 연수에 대한 검수 -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검수 - 장비에 대한 검수

18)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01) 참조.

사업완료 당시에 향후 학교 운영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 바 향후 그 발전이 주목된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Vocational Training School에서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구상할 계획에 있으며, 정부 부처의 고위직, 기업체 인사 등이 포함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전면 개편, 교원에 대한 연수훈련, 한국 전문가의 파견 등의 후속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국립대학 설립 사업은 2005년에 시작하여 2007년 11월 완공될 최초의 국립대학 설립 프로젝트로 한국 고등교육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라오스 고급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¹⁹⁾ 라오스는 인구에 비해 고등교육인력의 비율이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인구 550만 명에 5만 명 정도의 고등교육인구), 현재 배출된 인력만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라오스 교육부는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수도로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거점 도시에 지방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은 대학의 캠퍼스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어서 새로운 대학을 건립하여 기존의 캠퍼스와 연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본 사업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사업의 범위는 캄보디아 사업과 유사하게 학교운영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나, 4년제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개설학과는 농대(농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경영대(국제경영, 관광경영, IT경영학과), 공대(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학과)에 약 2,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대학의 설립은 라오스 정부의 고등 교육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시급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한국의 교육시설과 시스템을 전수하고 양질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라오스 경제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다만, 현재 라오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교원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다.

19) Lao PDR(2004) 참조.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학으로 하여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장학생 유치, 연구비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개정, 교원에 대한 연수, 전문가의 파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이상에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와 밀접한 상호보완 등을 통한 지원,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식상품으로서 교육수출, 그리고 한국이 새롭게 시도한 개도국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전수 등을 통해서 볼 때 향후 활발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을 고찰해 보았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건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원조는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었다. 대상국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자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독일의 경우, 정부(BMZ), 금융기관(KfW), 전문가집단(DED), 개발프로그램(InWEnt), 실행기구(GTZ)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국제개발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이미 지난 40년 넘게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마련한 시스템이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대외원조를 주관하는 부처는 없고, 국무총리 주관의 국제개발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경험시대 성공의 주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없다. 이들의 경험이야말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배워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구나 조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이들이 이직하거나 은퇴할 무렵에는 DED에 등록하도록 하여, 그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외교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같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지역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보다 비교우위적인 측면의 국제개발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개발경험의 전수

한국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개발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 대전 이후의 독립국가 중에서 더구나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이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계획과 인적자원개발, 산업발전계획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의 개발도상국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성공모델로 여기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교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개발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자연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모든 분야에 대한 대외원조가 절실했으며, 특히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와 투자가 절실했다. 그런데, 외부원조와 재건계획만 제대로 주어지면, 한국 경제는 조만간 자립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리기도 했다.²⁰⁾ 전쟁 이후의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나 사회기반 시설의 복구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이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이러한 원조는 교육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다.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경제발전계획과 결합하여 국가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²¹⁾

20) 자세한 내용은 이대근(2002) 참조.

21) 자세한 내용은 장지순(2004) 참조.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의 원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더구나 교육부문에 대한 원조는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원조를 통해서 산업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성장의 잠재력을 갖도록 해주었다는 점은 시사한 바가 크다.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사회발전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원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우도 없으며, 이러한 성공요인을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정보사회의 기술과 융합한 형태의 협력을 실행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이 된 만큼 이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3. 결론: 국제개발협력의 전략과 방향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결론으로서 한국의 교육서비스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전략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실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술과 인력의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해야 것이다. 특히 교육서비스 분야는 수많은 경험 및 전문성, 적은 투자에 비한 높은 효과,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의 보유,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는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기적을 이룩한 모범 사례로 잦은 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의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정보기술과 교육을 연계하는 모델은 국경을 넘어서 그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기술과 교육모델의 접목은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그리고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지역적 특성과 국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²²⁾ 이러한 구성형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따라 다르게 차별전략을 구축해야 한

22)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국제협력단의 경우도 유사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규모의 측면에서 불리하나, 잠재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각종 교육기관의 설립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은 고용허가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개발도상국에게는 한국의 발전경험이 전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국에는 문화전수 및 정보기술 전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다.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양 문화는 물질문명 위주의 서구세계로 하여금 매력적인 분야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기관의 역할, 대학 및 그에 따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및 실시에 따른 제도적 기반구축의 측면과 지역연구 및 범세계적인 이슈 해결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이론적인 기반은 물론 실행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²³⁾

셋째, 국제개발협력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구체적이면서 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중요하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초기의 타당성조사나 현장 조사가 얼마나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교육기관 설립 사업의 경우, 교원의 질과 학교운영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혹은 사업수행 중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구비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은 종합적인 사업으로 전문성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독립적이거나 부처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행하는 조직을 개편하거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은 물론 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외국의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직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밖에 국제적인 연구동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의 방

23) 호주의 태평양개발훈련연구소(Center for Pacific Development & Training), 벨기에의 지원연구정책센터(Studies & Policies Support Backup), 프랑스의 연구부(Mission for Studies), 일본의 국제협력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미국의 국제화프로그램위원회(Bureau for Global Programme)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국제개발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라든지 서섹스대학교의 '개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 등이 좋은 사례이다.

향이 언타이드화 및 원조제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방향이나 전략에 대한 정보는 수요조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국제협력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수원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이 진행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된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출연하는 분담금이 적은 편은 아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은 많지 않다.²⁵⁾ 따라서 이러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많은 수의 인력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권장 사항인 GNI 대비 ODA의 비율을 0.2%로 충족하기 위해 매년 일정 비율을 증액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남북경협기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대폭적인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다른 특별기금을 마련하거나 기업이나 민간 NGO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체로 하여금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인력수급방법을 한국이 설립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24) 2006년의 경우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가입에 따른 출자·출연(8.1천만 달러),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에 대한 재원 보충(7.6천만 달러) 등이 있으며, 이 밖에 UNESCO, ADB, World Bank 등에 분담금을 내고 있다.

25) 2000년까지만 해도 적정진출 범위였으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파소진출국가로 분류되었다. UN 직원 15,000명 중에서 40여 명 정도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록 역(1964). 『경제개발의 구상』, 잔 티바겐 저, 탐구당.
- 김영철(2006). 「국제화 시대의 교육산업현황과 전망(상)-고등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통권 208호, 48~51쪽, 미래한국재단.
- 이대근(2002). 『해방 후 · 1950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 삼성경제연구소.
- 이돈희 외(1999).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교육부.
- 장지순(200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재정경제부(2007). 「2007년 ODA 현황」.
- 조원권 외(2004).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Lao PDR(2004). *Feasibility Study on Luang Prabang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ment Project*.
- MEI, Xin-lin(2007). “Road of China-Africa Educ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Its Own Characteristics”, *US-China Education Review*, Vol.4 No.3, pp. 8~12.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01). *Feasibility Study on National Cambodia-Korea Vocational Training School Project*.
- <http://www.USAID.gov.au>
- <http://www.bmz.de>
- <http://www.ded.de>
- <http://www.educationnz.org.nz>
- <http://www.ids.ac.uk>
- <http://www.nzaid.govt.nz>

abstract

A Stud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Educational Services Sector

- The Condition for Export of Educational Services -

CHANG, Jiso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ransfer the experience of Korea's development through reviewing the cas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fields of educational services sector. The education is a valuable production in knowledge based society, and it is a key for national development as well as investment of the future.

The contents are to a) review of educational services sector, b) the cas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 the cas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ustralia, New Zealand, think education service sector is a leading key factor and strategy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Korea have a successful model as aspect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 This development experience is known for good case for contribution as successful model of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implement with strategic, which is contributed to international society.

Keywo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ing country, Export of knowledge, Transfer of experience, HRD